	<h1>보도참고자료</h1> <h2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h2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창조 금융</li> <li>• 따뜻한 금융</li> <li>• 튼튼한 금융</li> </ul>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			
책임자	최용호 과장(2156-9750)	담당자	신상훈 사무관(2156-9764) 이종림 사무관(2156-9752)	
배포일	2016.2.4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3매

## 제 목 : KDI Focus (2.3일자) "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" 관련

### 1. KDI 보고서 주요내용 : 지원대상 기업 생존율 5.32%p↑, 생산성 △4.92%p↓

□ 분석대상 : '09년 신보·기보·중진공 지원을 받은 2.5만개 중소기업  
(총 19.6조원 지원)

○ '07~'11년 '광업·제조업조사 자료'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과 유사 규모의 지원받지 않은 기업을 비교

⇒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존율은 5.32%p 상승한 반면, 생산성은 △4.92%p 감소(약 2.5조원 규모)

□ KDI 주장에 따르면 정책금융이 지원기업의 생존율을 증가시켰으나, 시장에 의한 효율화(구조조정, 사업축소 등)를 지연시켜 생산성 감소 야기

⇒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목표를 명확화하여  
“생존성 제고”에서 “생산성 향상”으로 올바른 목표 설정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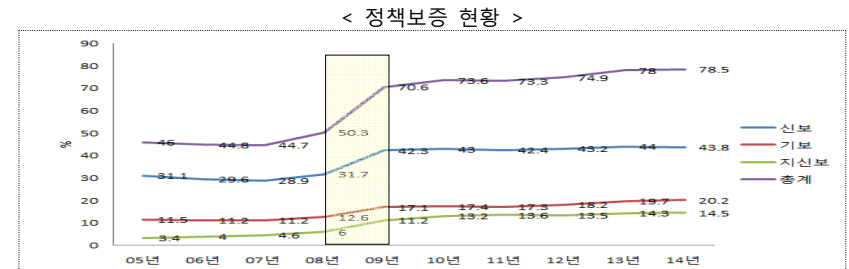
## 2. KDI 보고서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

- ◇ 금융위는 KDI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,
  - 정책금융 개혁을 위해 '15.11월 「중소기업 新보증체계 개편 방안」을 발표·추진 중에 있음

### (1) 기존 정책보증의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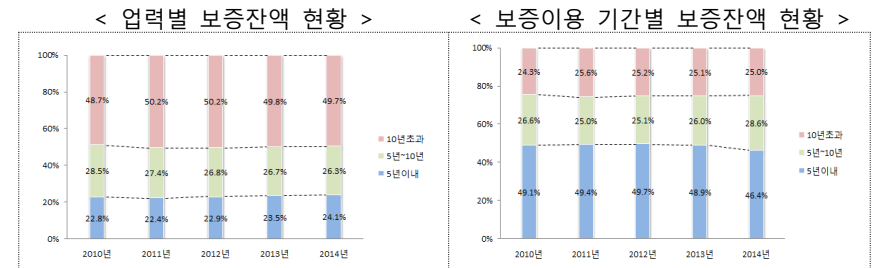
- ① 정책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애로 기업지원을 위해 '09년 이후 보증총량을 확대  
(신·기보 보증잔액 : '08년 44조원 → '09년 64 → '10년 65 → '15년 62)

\* 특히, KDI가 분석한 '09년 지원기업의 경우 정책보증 공급이 급격히 확대한 시기에 지원받은 기업으로 전체 보증 공급량 대비 생산성 향상효과가 낮았을 가능성이 높음



- ② 아울러, 보증이용의 장기화(10년 이상 장기이용기업 25%)로 장기이용 기업에 대한 과잉보증 문제를 야기했으며

○ 성장성 있는 창업·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감소시킴



⇒ 정책보증 개선을 위해 “新 보증체계” 개편방안을 발표·추진 중

## (2) “新 보증체계” 개편 방안 (’15.11월 발표)

### ① 위탁보증을 통한 보증의 효율화 추진 (’17년 도입 예정)

- 장기보증 이용 기업(10년 이상)에 대한 위탁 보증 도입 등 효율화 추진

\* 보증심사·결정을 ‘보증기관 → 은행’으로 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보증공급

### ② 창업·성장기업과 미래 新성장 지원에 정책보증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을 촉진

- ① (창업·성장)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폐지(’16.1월)  
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(’14년 14조원 → ’19년 18조원)

- ② (新성장지원)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위한 미래 新성장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(’15년 19조원 → ’16년 21.2조원)

### ③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보증계정\*을 분리(’17년 도입 예정)

\* (현행) 단일 보증계정 → (개정) 창업, 성장, 위탁, 안정계정으로 분리

- 보증계정별 보증효과, 손실을 등 분리하여 평가·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효과성, 리스크 관리 등이 보다 정교화 될 것으로 기대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 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들겠습니다  
바르게 알려겠습니다